



◇14년을 일심으로 함께 뛰어온 부산불교보현회 청년회와 천마재활원 축구선수들은 5월 25일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낸 기념으로 파티를 열었다.

바라밀현장 부산불교보현회 청년회

“축구아저씨 왔다!”
5월 25일, 부산 천마재활원 복도가 떠들썩해지는가 싶더니, 잠시 후 파티가 열렸다. 5월 15일 충북 제천시에서 열린 제23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라이벌 대구팀을 물리치고 천마재활원 축구부가 따낸 금메달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한 조촐한 파티였다. ‘축구아저씨’로 통하는 부산불교보현회 청년회

‘축구 아저씨’ 감사합니다

재활원을 찾았고, 축구복, 축구화는 물론 필요한 물품들을 후원했다. 전진호 회장의 월급 중 30만원 이상이 축구부 후원에 쓰여졌고, 회원들의 여가 시간은 천마 축구부를 위해 예약되었다.
“처음엔 무척 어려웠어요. 재정적 어려움과 무관심을 딛고 몸이 뭉개져 따라주지 않는 아이들에게 축구를 지도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마음 따로 몸 따로였죠.”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게 전회장의 설명이다. “지금은 세계대회에 한국대표로 출전할 만큼 실력 있는 축구부가 되었어요. 선수들의 노력과 의지가 이룬 성과지요. 너무 자랑스럽네요.” 실제로 천마재활원 축구부는



지금은 감독을 두고 훈련을 할 정도가 된 천마재활원 축구부를 위한 회원들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 축구에 대한 관심과 후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3년 전부터는 봄, 가을에 축구부 후원을 위한 축구대회를 연다. 조기회합, 직장팀을 초청 친선경기도 갖는다. 또한 천마재활원 축구부의 성과로 장애인 시설의 요청이 많아져 지난해부터는 성우원에도 축구팀을 만들고 성장단(37) 회원이 직접 지도에 나섰다. 천마 축구부는 성우원 축구부 훈련 조교로 활동하면서 선배노릇도 톡톡히 한다.
이 밖에도 청년회의 연간 계획서엔 천마재활원 성우원 생일자 명단과 추석 명절 용

매주 천마재활원, 성우원 축구부 물품 후원 장애 딛고 전국체전 금메달 따낸 밀거름

95년 특수올림픽 준우승, 2001년 아시아 정신지체인 축구대회 3위를 비롯해 입상 경력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다.
전회장의 칭찬에 축구부 주장 인홍수(36) 선수는 “장애에 상관없이 정정당당하게 겨룰 수 있는 자신감을 일깨워주었고 평생 갈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도움을 주었다”며 고마움을 담아냈다. 20살 막내부터 최고참 안 선수까지 정신지체 3급의 선수 28명에게 13년을 한결같이 ‘축구아저씨’로 찾아온 청년회원들은 이제 봉사자를 넘어 형이자 친구이고 아바다.
돈 주기, 원생들의 결혼기념일, 산타할아버지 방문, 소년의 집, 소아재활원 방문 등이 빼곡하게 적혀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내가 받고 싶었던 관심과 사랑을 소외된 곳에 전해주고 싶을 뿐”이라는 청년회원들. 나와 타인을 돌보지 않는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타인에게 베풀고, 원하지 않는 것은 타인에게도 하지 말라는 단순한 명제를 실천하는 노총각들이 부산불교보현회 청년회엔 많다. 부처님 가르침 함께 실천할, 참한 신부감 어디 없을까?
부산=천미희 기자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애니 파첸 돌마 (上)

티베트 독립운동에 헌신

“모택동의 통치시기에 수 천개의 티베트 사원이 파괴되었으며, 수 천명의 승려가 살해되었습니다. 수 만명의 티베트인들이 굶거나, 구타당하거나, 죽었습니다. 거대한 악업을 그가 모아서 지은 것이나 다름 없었죠. 하지만 나는 모택동의 죄가 소멸되도록 기도했습니다. ‘나의 적이 스승’이라는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애니 파첸의 ‘슬픈 산(Sorrow Mountain)’ 중에서)

“독방에 갇혀있을 때, 기도하지 않거나 기진맥진하지 않았다면 나는 의기소침해있을 겁니다. 침울하지 않을 때는 간간히 화가 났습니다. 성냄을 다스리기 위해 나는 화가 마음에 뚜렷이 떠오르게 했습니다. 나는 갑자기 린포체의 말을 회상했습니다. ‘친구와 적 사이에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들을 공평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당신의 적이 바로 그대의 스승입니다.’라는.”(‘슬픈 산’ 중에서)

티베트를 침략한 중국에 의해 생의 3분의 1을 감옥에서 보낸 애니 파첸 돌마(Ani Pachen Dolma: 1933-2002) 스님. 티베트 독립운동을 벌이다 21년간 혹독한 수감생활을 한 스님은 2002년 2월 2일, 세수 69세로 그녀의 사원이 있는 인도 다람살라에서 심장 마비로 입적했다.

애니 파첸 스님은 감옥에서 그녀의 아버지가 오른쪽 편에, 어머니가 왼쪽 편에, 그리고 ‘위대한 적’ 모택동이 자신 앞에 서 있다고 상상했다. 이 때 그녀의 아버지는 스님에게 힘과 용기를



◇애니 파첸 스님

강력한 세력을 가진 티베트 부총장의 외동 딸이었던 애니 파첸은 1950년 중국이 티베트를 침공했을 때 사미니로서 교육을 받고 있었다. 1958년 부친이 사망하자 수행을 중단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중국 정부에 대항하는 게릴라전을 전개했다. 그러나 수개월의 게릴라전을 펼치던 그녀는 중국 정부군의 공격을 받고 쫓기다 결국 체포당하고 만다.
애니 파첸 스님은 그후 20여년의 세월을 티베트에 건설한 교도소에서 보내게 된다. 수감기간 동안 1년이상 족쇄를 차고 생활했고, 9개월간 지하 독방에 갇히기도 했다. 물론 가혹한 고문이 반복됐다. 손을 뒤편 묶고 공중에 매단 채 어깨가 빠질 때까지 구타하는 등 혹독한 심문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코 수행자로서의 위치를 망각하지 않았다. 이는 티베트불교 수행에 따라 정신을 육체에서 분리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가능한 것이었다.
9개월간의 지하 독방 생활 때는 고통 속에서 10만 배까지 했다. 게다가 수감기간 내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 받는 ‘통글렌(tonglen)’이라는 티베트불교의 수행을 계속했다. 심지어 “저를 대신 제가 고통을 받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쉬지 않았다.

독방 생활에 10만배 정진 고통 대신 받는 수행 계속 석방후 평화시위대 구성 도와

월을 티베트에 건설한 교도소에서 보내게 된다. 수감기간 동안 1년이상 족쇄를 차고 생활했고, 9개월간 지하 독방에 갇히기도 했다. 물론 가혹한 고문이 반복됐다. 손을 뒤편 묶고 공중에 매단 채 어깨가 빠질 때까지 구타하는 등 혹독한 심문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코 수행자로서의 위치를 망각하지 않았다. 이는 티베트불교 수행에 따라 정신을 육체에서 분리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가능한 것이었다.
9개월간의 지하 독방 생활 때는 고통 속에서 10만 배까지 했다. 게다가 수감기간 내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 받는 ‘통글렌(tonglen)’이라는 티베트불교의 수행을 계속했다. 심지어 “저를 대신 제가 고통을 받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쉬지 않았다.

주었다. 어머니는 부드러움과 친절함을 일깨웠다. 모택동은, 역설적이게도 스님에게 이 세상에서 사악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게끔 하였다. 매순간이 생지옥과도 같은 21년의 세월이 흐른 후인 1981년, 중국과 티베트간의 긴장이 완화되자 많은 티베트 독립투사들이 석방됐다. 그중에는 애니 파첸 스님도 있었다. 그녀가 라사에 돌아왔을 때 집은 모두 파괴되고 가족들은 빨갱이 흩어져 있었다. 스님은 슬퍼할 틈도 없이 중국의 통치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는 최초의 평화적 시위대를 구성하는 일을 도왔다.
1988년 스님은 체포될 위험을 무릅쓰고 걸어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네 팔로 망명했다. (계속)
김재경 기자



◇틈틈이 불구를 닦는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신도들.

향로, 촛대, 찻잔, 요령... 불교의 식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불구(佛具)들. 자칫 ‘허드렛일’로 여겨질 수 있는 불구 닦기를 자신의 수행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
북한산 노적사의 ‘불구를 닦는 모임’은 94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타고 난 향의 재를 뒤집어 쓰고 있는 향로나 촛농이 켜켜이 앉아 있는 촛대, 차나 다른 음식물이 묻은 찻잔 등의 불구를 초하루 법회 전날 깨끗이 닦는 것이 이들의 몫이다.
노적사에서 10여년째 불구닦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광연사 보살은 “늦그릇은 조금만 소홀히 방치

“불구(佛具) 닦으며 마음도 닦아요”

이물질 많아 닦다보면 번뇌 사라져 지루한 작업 오히려 발심 계기

해도 푸른 녹이 슬곤 합니다. 그만 큼 손이 많이 가는 탓에 한번 시작하면 손을 놓기 어렵다”고 말한다. 정광순 보살은 “먼지가 이물질들이 많이 묻어 있는 불구를 닦다보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번뇌도 사라지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러나 불구를 닦는 일이 이렇듯 말처럼 그리 만만치 않은 않다. 늦그릇 만든 불구에 붙은 먼지와 촛

생각하기 때문에 보람을 더 많이 느낀다”고 말한다. 정기적으로 불구닦기를 하고 있는 유가사 관음회의 나경자 보살은 “부처님전에 올리는 불구들을 닦다보면 하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신심이 절로 솟는다”고 말한다.
이 밖에 1999년 창립된 길상사 보현회는 요일별로 봉사팀을 조직해 불구닦기를 하고 있으며 도봉산 만월암 불구닦기모임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마다, 인덕원 삼천사도 자체적인 봉사모임을 결성해 각종 재일에 불구를 닦는다.
여수형 기자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본초에는 上蔘 120가지 中蔘 120가지 下蔘 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蔘중의 첫째가는 君蔘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 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하약 뇌 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생기증장),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普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몸계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품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號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당(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당(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 山蔘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뚫듯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